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DHL사, 지난해 북미 최대 물류공급망 보유



물류정책·산업동향

1. 새로운 전자상거래 규정... 인도 소비자들에게 피해
2. 머스크, 육상물류 인수대상 사업 물색 중
3. 중국 서부 8개 지역, 국제 내륙-해상무역 회랑 건설 협력
4. TradeLens, 사우디 블록체인 시범사업 지원

명사 스피치

“2019년에는 해운산업 재건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한해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마련한 제도적인 기반을 토대로 해서 선박의 신조발주와 해운물류기업의 재편, 그리고 친환경 해운체제로의 체질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항 제2신항 입지를 확정하는 등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항만들이 체계적인 국제물류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2019. 1. 3. / 2019년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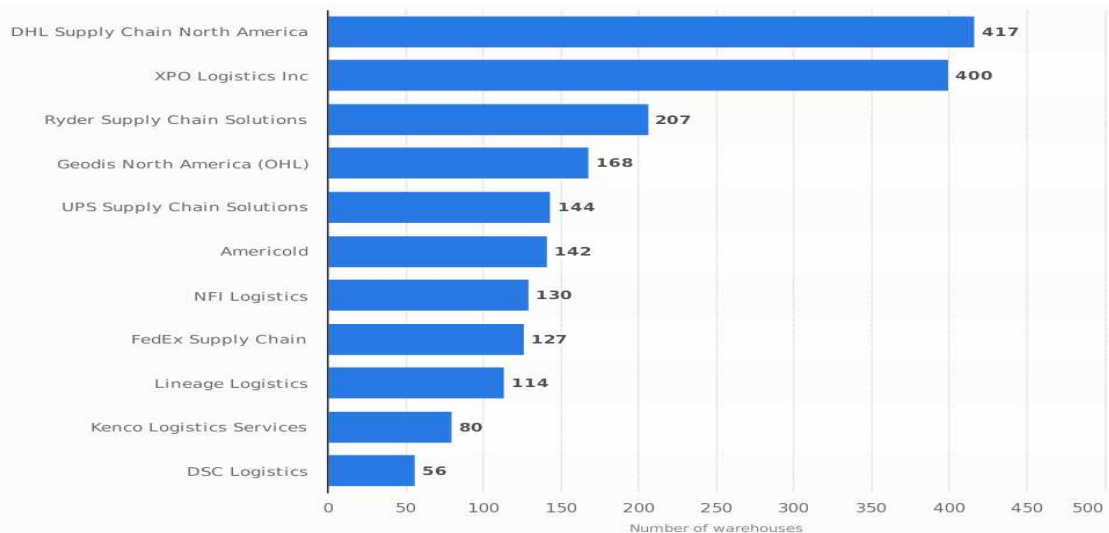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DHL사, 지난해 북미 최대 물류공급망 보유

2018년도 북미 3PL기업 창고 분포 수에 따른 순위



자료 : www.statista.com

- 통계정보 제공업체 Statista에 따르면 2018년 북미 지역 3PL(third party logistics)기업의 창고 분포 수 순위에서 독일계 물류회사인 DHL사의 물류사업부문인 DHL Supply Chain¹⁾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총 417개의 창고를 운영해 1위를 차지함
 - 2위는 400개의 물류창고를 보유한 미국계 물류회사인 XPO Logistics가 차지했으며 3위는 미국계 물류회사인 Ryder Supply Chain(207개)으로 나타남
- 특히 Deutsche Post DHL Group의 일원인 DHL Supply Chain은 지난 12월, 북미 물류시설에 첨단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향후 약 3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DHL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는 로봇 공학, 증강 현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IoT 및 DHL의 자사 솔루션인 My Supply Chain 등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 함
- 투자를 통해 DHL사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신속한 수요관리와 인도시간 단축 등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노동집약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물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참고자료 : www.statista.com, 2019.1.3. / www.forbes.com, 2018.12.3.

김가현 전문연구원

051-797-4692, ghkim@kmi.re.kr

1) Deutsche Post DHL Group의 사업부문은 총 4개로, 특송사업의 DHL Express, 전자상거래물류사업의 DHL eCOMMERCE, 포워딩 사업의 DHL Global Forwarding, 그리고 물류 공급사업 부문인 DHL Supply Chain으로 나누어져 있음



새로운 전자상거래 규정… 인도 소비자들에게 피해

- 최근 인도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전자상거래 규정으로 인해 인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아마존, 월마트의 플립카트(Flipkart) 등의 외국 기업들은 식료품 이외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외국 기업들은 인도 기업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한 예로 아마존의 경우 인도 기업의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제품들은 개별 판매자에 의해 판매되는 것으로 광고되고 있음
-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새로운 규정은 현 온라인 시장의 하점을 봉쇄함과 동시에 플랫폼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상품 판매를 금지시키게 될 것임
 - 이는 곧 기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던 할인, 현금 환급(cashback) 등의 혜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임
- 인도 정부는 공정한 무역을 창출하고 외국 기업들이 국내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엄격한 규정이 제정되었다고 밝힘
 -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본 규정으로 인해 향후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함
 - 또한 파격적인 할인과 현금 환급은 온라인 쇼핑의 가장 큰 두 가지 매력이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이번에 새로 시행될 전자상거래 규정은 아마존, 알리바바, 월마트와 같은 외국 전자상거래 거물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아마존은 지난 2017년 글로벌 확장으로 인해 약 30억 달러를 손해 봤으며, 당시 대부분의 피해가 인도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난해 5월 월마트는 플립카트 인수를 위해 160억 달러를 지출한 바 있음

■ 참고자료 : www.warc.com, 2018.1.9.

이기열 전문연구원

051-797-4670, kylee@kmi.re.kr

머스크, 육상물류 인수대상 사업 물색 중

- 최근 머스크 Soren Skou 최고경영자는 향후 몇 년 간 자사의 일부 사업으로 트럭킹, SCM 및 창고 운영 등을 포함하는 육상분야 물류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머스크의 비전은 고객들에게 글로벌 공급망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Soren Skou씨는 현재 20% 미만의 고객들이 머스크로부터 육상물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고객이 항만을 기점으로 하는 트럭킹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머스크는 2013년 해운과 에너지 및 관련사업 등 핵심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트럭킹 자회사인 Bridge Terminal Transport(BTT)를 Platinum Equity에 매각한 바 있음
- 이를 위해 머스크는 인수합병 방식으로 육상물류 분야의 능력과 규모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며, 인수 대상으로는 자사가 현재 취급하지 않는 산업분야 SCM 사업을 원하고 있음
 - 현재 머스크는 소매분야 공급사슬관리 리더로 나이키, 아디다스, 월마트, 홈데포 등 대형 화주그룹에 글로벌 창고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리적으로 머스크가 컨테이너 운송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인도는 물론 현재 어느 정도 사업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과 미국 등 지역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 머스크는 글로벌 통합 컨테이너 물류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2016년 9월부터 자사를 운송·물류 및 에너지 두 개 부문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추진해 오
 - 2017년 11월 머스크는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 입지를 굳히기 위해 40억 달러를 들여 함부르크 수드 (Hamburg Süd)를 인수했으며, 현재 통합작업을 진행 중임
 - 2018년 초 머스크는 에너지 사업 분리를 위해 2019년 나스닥 코펜하겐에 Maersk Drilling을 독립회사로 분사할 것이라고 발표함

■ 참고자료 : www.ft.com, 2018.12.27.

김은우 전문연구원

051-797-4680, hisgrace@kmi.re.kr

중국 서부 8개 지역, 국제 내륙-해상무역 회랑 건설 협력

- 지난 1월 7일 중국 서부에 위치한 8개 지역은 새로운 「국제 내륙-해상 무역 회랑(New International Land-Sea Trade Corridor)」 건설을 위한 협정에 서명함
 - 새로운 회랑은 중국과 싱가포르 간 전략적 연계 시범사업 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 서부 8개 지역과 아세안 국가 간 국제 무역과 물류를 위한 통로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중국 서부 8개 지역은 충칭시(Chongqing), 구이저우(Guizhou)성, 간수(Gansu)성, 칭하이(Qinghai)성, 윈난(Yunnan)성, 중국 남부 광시좡족(Guangxi Zhuang)자치구, 중국 북서부의 신장웨이우얼(Xinjiang Uygur)자치구 및 닝샤후이(Ningxia Hui)자치구가 포함됨
- 새로운 국제무역 회랑을 통해 철도, 도로, 해상, 항공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 세계와 중국 서부지역과 연계가 가능함
 - 충칭시를 운송허브로 하여 광시 베이부 걸프(Guangxi's Beibu Gulf) 지역을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 항만과 연결하고, 중국-유럽 대륙철도를 통해 중국 서부지역을 유럽,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연결하고자 함
- 이 같은 회랑은 2017년 최초 개발 이후 2018년 11월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참여하고 있는 지역 범위도 확대됨
 - 2017년 당시 명칭은 「중국-싱가포르 남부 운송 회랑(China-Singapore Southern Transport Corridor)」이었으며, 참여 지역은 충칭시, 광시자치구, 구이저우성 및 간쑤성으로 한정되었음
 - 이후 점차 그 범위가 넓어져 2018년 6월과 11월에 각각 칭하이성과 신장자치구가 참여했으며 현재는 협력 관계가 8개 지역에 이르고 있음
 - 시범사업단에 따르면 8개 지역의 참여는 국제 내륙-해상 무역 회랑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증거이며, 나아가 해상실크로드와 연계해 중국-아세안 국가들과의 공동 발전뿐만 아니라 중국 서부지역의 개발 기회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 www.xinhuanet.com, 2019.1.8.

김보경 연구원

051-797-4674, kimb@kmi.re.kr

TradeLens, 사우디 블록체인 시범사업 지원

- 사우디아라비아 세관과 IT 파트너인 Tabdul에서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경 간 무역(Cross-Border Trade•CBT) 플랫폼인 FASAH를 머스크와 IBM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TradeLens에 통합함
 - 사우디아라비아 세관은 육상, 해상, 항공을 통한 무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부처로, FASAH를 통해 CBT와 관련된 모든 정부 및 민간 기관과 연결되어 있음
 - 이번 시범사업은 FASAH와 TradeLens를 연계함으로써 불변성(Immutability), 추적성(Traceability)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본 시범사업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다각화 및 국제 투자 유치, 새로운 기술을 통한 전반적인 성장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국가적 계획인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세관은 운영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통관 업무 절차 간소화 및 자동화를 추진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세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함
 - H.E Ahmed Alhakbai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무역을 촉진하고 보안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세관 전략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우디 왕국을 세계 최고의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임
 - 또한 그는 FASAH와 TradeLens 플랫폼을 연계하는 이번 시범사업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세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함
 - IBM의 Tarek Zarg El Aioun 사우디아라비아 지사장은 블록체인이 사우디아라비아 세관과 같은 기관을 위한 새로운 신뢰기반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또한 TradeLens 도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세관은 지역 내 해운산업을 빠르게 변화시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실시간 운영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말함
 -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 세관은 FASAH와 TradeLens의 통합을 통해 세분화된 P2P(Peer-to-Peer) 비즈니스 생태계를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구축함으로써 확장성 문제 해결, 협업 촉진,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추구하고 있음

■ 참고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9.01.03.

강무홍 전문연구원

051-797-4684, mkang@kmi.re.kr